서울주보

제2499호
2024년 4월 21일(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착한 목자
갈라 플라치디아 (Galla Placidia, 388~450)
모자이크화 5세기경 이탈리아 라벤나

입 당 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4,8-12

화 답 송 |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 1요한 3,1-2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11-18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삯꾼에게도 필요한 인내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전쟁의 참화가 프랑스에 드리웠을 때, 유다인 출신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자처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말로 자신이 좋아한 희랍어 단어 'ὑπομονή'(휘포모네, 인내)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구원을 실현하는 태도는 그 어떤 활동과도 비슷하지 않다. … 그것은 기다림, 한없이 지속되면서 어떤 충격으로도 뒤흔들지 못하는 주의 깊고도 충실한 부동성(不動性)이다." (≪신을 기다리며≫, 2015년)

오늘 복음은 목자와 삯꾼을 대비시킵니다. 먼저 목자는 양을 소유한 이입니다.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봅니다. 양들이 그를 살게 하기에 자신을 돌보듯 양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리의 위협에도 양들 곁에 가만히 머물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목숨은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삯꾼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양들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받은 일당으로 자기 자신만 돌보면 그만입니다. 양은 목자에게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삯꾼에게는 자신의 삶을 꾸릴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삯꾼의 차이는 '인내'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목자는 양들의 걸음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자신과 양들은 걸음 폭이 다르고 눈높이가 다르지만 함부로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인내합니다. 밤을 보낼 집으로 그들을 이끌고, 목을 축일 샘터와 먹이가 있는 풀밭으로 천천히 동행합니다. 양들이 더 살찌고 그들의 털이 더 윤택해지기를 자신의 삶을 담아 희망합니다. 하지만 삯꾼은 기다릴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해가 떨어져 편안한 잠자리로 돌아가 쉬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양이 잘 먹어 살이 찌는 것은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기에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삯꾼에게도 양들은 중요합니다.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잘 돌본 양들을 보고 목자가 줄 품삯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삯꾼에게도 목자와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닮아, 그가 했던대로 양들을 잘 돌보아야만 좋은 일꾼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삯꾼은 양들을 잘 돌봅니다. 그리고 양들과 함께 자신의 수고를 알아줄 목자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부활 4주일인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이 날, 목자의 임무를 맡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선교사와 수도자, 성직자들은 그들의 일로 목자이신 주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며, 희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양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비록 삯꾼처럼 주인에게 고용된 이들일뿐이지만, 목자의 충실함이 그들을 감화시켜 그들도 목자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양들 속에서, 누구보다 간절히 목자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모두가 한 우리 안에 같이 모일 때, 그들이 찾고 또 살찌운 양들 곁에서 목자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목자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 플라치디아의 영묘 안에 있는 이 모자이크에서 예수님께서는 황실 예복을 입으시고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를 지니신 '목자'로 표현되었는데, 인간을 상징하는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푸른 바탕의 원형 장식들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양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윤지 마리아 | 배우

어린 시절, 다른 집과 경제적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던 우리 가정 형편 안에서 엄마는 먹성 좋은 저희를 먹이고 가르치시느라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면 공부를 곧잘 하는 둘째인 저를 조금이라도 더 가르칠 수 있겠다는 엄마의 생각을 저는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도 원하는 곳으로 입학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어린 시절로 가보려고 합니다. 둘째인 저는 발달이 늦된 오빠를 대신해 첫째여야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오빠 손을 붙잡고 엄마가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며 한참 한글을 가르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어깨 너머로 이미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오빠 학원비까지 제가 다 쓰던 시절엔 점수만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보답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재수, 삼수는 없다!'라는 목표를 세운 후엔 단 한 번도 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배우로 데뷔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배우라는 직업, 그 꿈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빠와 저 사이의 일들, 그때의 슬프고 진한 감정들, 가족들이 오빠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배우의 기본을 이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저만의 연기 기술을 하나 공개해 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며 이해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배우는 늘 작품마다 다른 직업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이 아닌,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대충 책으로 읽어서는 그 인물을 연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 하지요. 대본을 토대로 한참을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알아가는 것이지요. 작년은 저의 데뷔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요즘말로 '소오름!'입니다. 그동안 끊이지 않고 이 직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소름!'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만나며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생각이 늘 같았다는 것도 '소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루카 1,38 참조)라는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눈물 많고 불안하던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되새기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지금은 주님께서 정말 당신 뜻대로 이루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처음부터 나를 오빠의 동생으로 삼아 주시고, 커서는 사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직업을 갖게 하심으로써 '나'라는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깨에 빵빵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배우라서 좋겠다. 유명해서 좋겠다.' 하시는데, 네,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그것들보다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의 딸임을 자랑해 보고 싶습니다.

한컷 교리

부활 시기는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50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 5,34)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소문에 이끌려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일찍이 그들 가운데서 스승이라 불리던 이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기에 그분 말씀 안에서 진리와 삶의 의미를 찾고자 달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던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지금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니 제발 자기 집으로 가서 딸아이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간절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길을 나서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는 줄 알고 흥분에 싸여 그분을 따라나섭니다. "이러다 다칩니다. 제발 좀 밀지 마세요!" 행여 몰려드는 인파로 예수님께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된 제자들은 그분 곁에 바짝 붙어 사람들에게 고함을 칩니다.

마르코는 바로 이 북적거리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하느님의 권능이 흘러 나갔음을 감지하시고 멈춰 서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스승님,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스승님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제자들은 심통 난 표정으로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뒤따르던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출혈에서 비롯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출혈한 여성은 '불결'한 상태이기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타인과 접촉도 불가하다는 율법 규정(레위 15장 참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죄인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쏟아부어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신음하던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다시 살게 해주실 수 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중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 위해 그녀는 간절히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병고가 사라졌음을 직감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분의 말씀에 그녀는 땅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간절함에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기쁨에 그녀는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일생의 과제, '자유'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죽음, 질병, 재산, 삶의 과업, 인간관계, 시간을 비롯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고 무언가를 사기 위해 돈을 아껴야 하지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행동을 참아야 하고, 직장 혹은 가정의 일들은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굴레가 우리 곁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자유를 오랫동안 갈구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저명한 철학자들은 종교 역시도 장애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하며 환상의 행복뿐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니체는 종교를, 자신의 감정을 사랑과 희생으로 몰아넣는 '노예 도덕'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의 사상은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제 현대인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장애물로 여기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인간은 정말 자유롭게 될까요? 이에 대해 철학자 베르댜예프는 말합니다. "현대의 인간은 규범과 척도를 자신에게 부과하는 대신에, 자신의 자유를 온갖 열정과 본능을 달래는 데 사용했고, 스스로를 쾌락의 원리나 소유의 권력 원리에 끌려가도록 내맡겼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라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 되지만 하느님의 아들을 따르는 이들은 정녕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오로 역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라 5,13)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르침을 올바로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것이 물질적 이기주의로 인한 자유라면 그 자유는 죄의 노예가 누리는 저급한 자유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헛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현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지만 더 노예, 노예,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자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윤리신학의 가르침 안에서 자유는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없으며 선의 영역에 있을 때 비로소 올바로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주고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지각'을 가질 때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할 일생의 과제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Youth

'궁금한 이야기 YOUTH'는 주일학교 청소년과 청소년 사목에 함께하는 동반자(사제, 수도자, 교사, 자모회 등)의 인터뷰를 담아 신앙생활과 주일학교 이야기를 소개하는 매월 셋째 주 서울주보 청소년 특집입니다.

편집_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청소년 사목부서 미디어부

네 번째 인터뷰!

양천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담당 수녀님과 복사 단장

*하느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양들의 천국,***
***양천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담당 수녀님과 복사 단장 친구를 만나보았습니다*

문 아가타 수녀

복사 단장 김동연 라파엘

자기소개 부탁해요.

김 라파엘 안녕하세요. 양천성당 복사 단장을 맡고 있는 중3 김동연 라파엘입니다.

Sr. 문 아가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문 아가타 수녀입니다. 올해 1월 말에 양천성당으로 부임해서 신부님과 함께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녀님과 동연 군은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나요?

김 라파엘 제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복사 단장이 되어서 복사단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주일학교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Sr. 문 아가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새 보금자리인 양천성당에서 그분 자비의 협조자 그리고 사랑의 친교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인이자 수도자이길 바랍니다.

동연 군은 미사 복사를 설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김 라파엘 초등학생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제대에 올라가서 실수 없이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부님 옆에서 미사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수녀님께서는 올해 주일학교 안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Sr. 문 아가타 매 순간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찾을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하느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언제였고,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해요.

김 라파엘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성당 안에서 여러 친구를 사귀고 미사에 열심히 나오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Sr. 문 아가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럼에도 할머니께서는 새벽 미사를 거르지 않으시고, 주무시면서도 손에서 묵주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할머니께서는 글을 읽는 것이 어려우셔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것을 초월해서 오롯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할머니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 하시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비로소 하느님이 제 삶에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_____(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김 라파엘 하느님은 '성벽'이라고 생각해요. 성벽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듯, 우리도 하느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Sr. 문 아가타 '자비의 마라토너!'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달려가시어, 결국에는 나를 그분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 주일이기도 해요. 수녀님께 성소란 어떤 의미인가요?

Sr. 문 아가타 거룩한 부르심에 깨어 충실과 성실을 맹세하는 용기 있는 선서이자 약속이에요.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시편 95,8 참조) 내 안에 울리고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궁금해하고, 그분을 통해 답을 얻으며 참기쁨을 느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김 라파엘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 함께 기쁜 부활 제4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Sr. 문 아가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알렐루야!'를 환호하는 날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양천성당 문 아가타 수녀님과 김동연 라파엘 친구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작, 감독 '이소현'

영화칼럼

영화 '장기자랑'

영원을 태우리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투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불치병에 걸린 아들의 치유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어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에도 결국 아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당신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가수 노사연의 노래 '만남'을 불러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아들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통해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해 온 지난 시간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게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만남을 무언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기적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어머니는 확신합니다.

이소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이 연극 활동을 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한동안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머니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몇몇 취미 활동들을 함께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연극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김태현 연극 감독의 도움을 받아 4·16 가족 극단 '노란리본'을 꾸린 어머니들은 연극을 통해 당신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만족합니다. 그렇게 연극 활동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우연이나 필연과 같은 일방적인 영역이 아닌 '서로 간의 바람'으로 이어진 인연과 '영원'의 영역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노란리본 극단의 세 번째 작품인 연극 〈장기자랑〉을 준비합니다. 이 연극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될 단원고 학생들이 여행지에서 선보일 장기자랑을 연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기자랑은 연극 안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도착한 제주도에서 친구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영화의 말미에 이르러 어머니들은 단원고등학교 강당에서 〈장기자랑〉의 마지막 공연을 펼칩니다.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학부모들이 처음으로 모였던 장소이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이 열렸던 곳에서, 아이들의 못다 핀 꿈을 연극으로 대신 피워주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영화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연과 필연의 틀이 아닌 서로 간의 바람으로 묶듯이 담습니다. 이 같은 영화 속 어머니들의 모습은 한계지어진 우리네 기억에 '영원'을 새기고 태울 수 있음을, 그리고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영원을 태우는 기억'으로 새겨져야 함을 일깨웁니다.

오늘(4월 21일)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 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소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 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86년 4월 23일 임종국 바오로 신부(80세)
- 1993년 4월 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08년 4월 24일 김택구 루도비꼬 신부(72세)
- 2017년 4월 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 2021년 4월 27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90세)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교구청 알림

가톨릭신자 소방 공무원 1일 피정
때: 5월11일(토) / **지도:** 강혁준 신부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이준호 신부(미국 알래스카 선교)
때, 곳: 5월2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2024 상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0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50명(선착순 마감)
교육과목: 신앙전수법 / **신청기간:** 4월30일(화)까지 접수
때, 곳: 5월14일(화)~6월18일(화) 10시30분~12시30분(총 6주),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727-2385, 2386 / **회비:** 8만원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2024 ·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1)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교회사	4월25일~5월9일(목) 19시30분~21시
신학	5월16일~30일(목) 19시30분~21시

2) 문화 강좌

나만의 부활 십자가 만들기(목공예)	4월25일~5월16일(목) 19시~21시
생활 악기 성가 합주반(낮반)	4월25일~5월30일(목) 16시~18시
칼림바 & 에그라리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우쿨렐레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초보를 위한 디지털 펜 드로잉(낮반)	5월22일~6월19일(수) 15시~17시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는 십자가의 길(저녁반)	5월22일~6월19일(수) 19시~21시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그레고리오 성가 부르기
대상: 그레고리오 성가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때: 5월 매주(화) 10시~11시30분(5월7일 시작)
강사: 신기호 신부(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원장)
등록: 4월22일(월)~30일(화)
문의: 02)393-2213~5 / **회비:** 3만원(4회)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민족화해위원회
1) 1415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2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서울대교구 황주 본당, 사창 본당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 **문의:** 02)727-2415
때, 곳: 4월26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뮤지컬,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영적글쓰기, 현대미술-신앙을 말하다, 자존감 되찾기(문종원 신부),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 되찾기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교육신청 / **문의:** 02)727-2126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향심기도 2박3일 집중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4월26일(금) 17시~28일(일) 16시
곳: 명상의 집(우이동) / **회비:** 14만원
문의: 010-4565-8898

2024 토요 성모신심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조창호 개인전: 1전시실
이명화 이수정 2인전: 2전시실
류인하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24일(수)~5월2일(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가난의 종착점인 공영장례
지향: 무연고 사망자 영혼을 위해
때, 곳: 4월25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빈민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428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1) 제50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관심있는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주제: '우주 진화사와 『찬미받으소서』'(이정규 박사, 생태영성연구소 연구위원, 생태심리학)
때, 곳: 4월24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신청방법: 이메일(ecocatholic@hanmail.net) 접수 / 회비 없음
2) 2024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설명회
대상: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관심 있는 본당 및 신자 / 회비 없음
내용: 2024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설명(한국에너지공단), 설치 사례발표(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구파발성당, 주택 옥상), 대전지역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 질의응답
때, 곳: 4월25일(목)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호 강당(명동)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잠시멈춤' 청년 1박2일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5월18일(토) 14시~19일(일) 17시, 가평 피정집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때: 6월12일(수)~24일(월) 12박13일 / 선착순 접수
곳: 스페인·루르드·파티마 / 회비: 550만원
문의(접수): 010-5391-0229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17일~19일·5월22일~24일(성모의 밤)·5월26일~29일(추자도)·6월21일~23일·9월2일~4일·9월7일~9일·9월11일~14일(추),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14일·7월20일~22일·7월25일~28일, **제주성지순례(추자도성지)** 6월16일~19일·7월1일~3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4월26일	이상기 회장	5월3일	양홍 신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4월23일	이상기	4월30일	김종국 신부

주교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문의: 010-3209-3955 성모솔숲마을(대구대교구)

주교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5월18일(토) 16시
가정성화를 위한 성모의 밤	5월1일~31일 매일 17시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6차	5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7차	6월14일(금)~22일(토)	
제128차	7월19일(금)~27일(토)	

가정선교회 5월 피정·미사
때, 곳: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채널 개설: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정선교회' 검색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5월1일(수) / 김웅렬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5월4일(토) / 하성용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5월18일(토) / 김재덕 신부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순례	5월14일~16일,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8월21일~23일, 9월1일~3일
성지순례	5월8일~11일, 5월19일~22일, 6월15일~18일
우도해변 포함	7월25일~28일, 8월2일~5일, 8월8일~10일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17일(금)~20일(월)·5월31일(금)~6월3일(월)·7월19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5월24일(금)~26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4월13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때: 5월23일~25일(성모의 밤)·6월19일~21일·10월2일~4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2024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자이시다.(메시지 596번)
미사: 구요비 주교(서울대교구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양창우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 곳: 5월5일(일)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혜화동) / 문의: 02)470-5851, 010-3136-7869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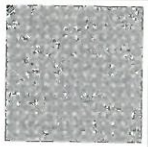
새천년복음화학교 150기 개강
때, 곳: 4월24일(수) 14시·5월2일(목) 10시,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이콘 수강생 모집(입문반·중급반-실기)
때: 4월4일~6월6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곳: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5월~6월 봄학기(Ⅱ) 수강생 모집
개강: 5월7일(화)~8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지휘자의 영성과 그레고리오성가 지휘법(가톨릭성가를 중심으로)
강사: 최호영 신부, 인영균 신부(왜관 분도 수도회)
때, 곳: 6월6일 13시~18시,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401호
문의: 010-4513-7605 세실협회 사무국
회비: 5만원(교재 포함) / 5월24일까지 접수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다

대상: 여성 신자(선착순 15명)
때, 곳: 5월7일~6월18일 (화) 10시~12시, 전교가르멜수녀회(주최, 전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10-2037-9262, 02)737-7765

서울대교구 38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5월26일~6월23일 매주(일) 13시30분~18시30분(5주간), 잠실7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수원교회사연구소 신앙선조 교리학교
내용: 신앙선조의 중요교리(핵심정리 교리교육)
강의: 정 바오로 신부(연구소장)
때: 3월~7월 매주(일) 10시~10시50분(11시 미사)
곳: 구산성지 성당 / 문의: 010-8588-7177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4년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월3일(월) 14시
원서접수: 5월7일(화)~20일(월)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평화 학교(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때, 곳: 1차 5월18일(토) 15시~19일(일) 14시·2차 6월22일(토)~23일(일)·3차 7월20일(토)~21일(일)·4차 8월24일(토)~25일(일), 왜관 수도원 내 피정의 집 / 회비: 8만원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 문의: 010-6791-0071 (문자)

가톨릭신앙아카데미 41기 모집
대상: 방송, 신문, 출판, 홍보, 뉴미디어 등 미디어 종사자(1973년 이후 출생) / '밀라논나' 장명숙,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 등 다양한 강사진
수료시 교구장님 명의 수료증 부여
때, 곳: 5월21일(화) 개강-매주(화) 19시20분부터 약 2시간(총10회), 서울대교구청(명동) 본관 501호
회비: 15만원 / 주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문의: 010-5294-6207(ca_sinang_ac@naver.com)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캠프모집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22일(월)~5월2일(목)-전형일 5월18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석·박사통합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과목: 재즈피아노(수시 모집) / 회비: 16만원(8주 기준)
때: 매주 목요일반 19시~21시, 금요일반 10시~12시
문의(접수): 010-7244-1312 / 강사에게 직접 연락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모집

시스띠나시니어합창 단원 모집(혼성)
그레고리오성가, 전통전례음악, 미사곡에 관심 있으신 55세 이상 남녀 교우(성가대 유경험자 환영)
비발디 글로리아 전곡 연주 예정 / 010-9842-8818 '다함께성가를TV' 이호중 교수 지휘
때, 곳: 매주(수) 14시~16시, 시스띠나음악원(주최, 신촌)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4월24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오태순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4월25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4월26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봉헌식 미사
때, 곳: 4월29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4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4월24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4월2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최원석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고준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가톨릭여성연합회 4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유승록 신부(주교좌 기도 사제)
때, 곳: 4월23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성바오로수도회 레벤북스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강사: 정석 교수 / 주제: 레벤북스 신간 '행복@로컬-정석의 하동·목포·전주·강릉 한달살이 이야기'
때, 곳: 5월18일(토) 14시, 성바오로수도회 본원(미아동) / 문의: 010-2557-1361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교육관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가족과 내면아이 마음 치료(집단 상담)	5월7일부터 매주(화) 10시~13시(7주)
몸으로 떠나는 영적 여행	5월10일부터 매주(금) 10시~12시(7주)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워크샵	5월11일(토) 10시~17시
낯의 무의식, 모래놀이치료-진정한 본성과의 만남(5월 특강)	5월21일(화) 10시~12시 회비: 2만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200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www.karf.co.kr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사별, 부부, 영성상담 / 010-9146-7654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4월30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주제: 자녀와 부모의 신앙단계 알기와 신앙 이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 5월19일(일)까지 접수
때: 5월24일(금) 19시30분~21시30분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마음자리(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원 모집 / 문의: 02)2691-4365
분야: 사회복지사(계약직 1명)
마음자리 홈페이지(www.maumjary.com) 채용 공지사항 참조 / 이메일(momjari@naver.com)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종로구) 세탁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세탁근무자 ○명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5월5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 시간 상의	수녀원(서울)	010-5604-1882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4월28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예수회	수시	성소실(마포구 신수동)	010-8332-8729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4월27일(토)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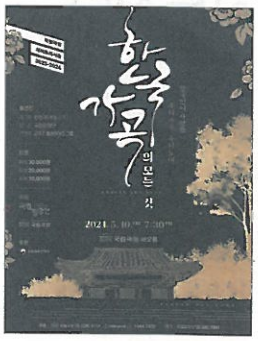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의사 선우경식

이충렬 지음
위즈덤하우스 | 308쪽 | 2만원
문의: 02)2179-5726

이 책은 전기 문학으로 유명한 이충렬 작가가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 써낸 의사 선우경식의 공식 전기이자 유일한 전기다.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살다 간 우리 시대의 성자, 선우경식의 삶과 영성을 담았다.



음악회

국립합창단 '한국 가곡의 모든 것'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예약): 02)2280-4114,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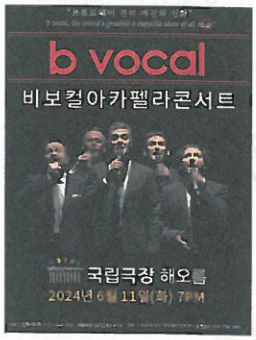
국립합창단 '한국 가곡의 모든 것'이 오는 5월 10일(금) 19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들의 시에 국내 유수 합창 음악 작곡가들의 선율을 얹는 방식으로, 한국인이 사랑한 추억 속 한국 가곡들을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새롭게 편곡하여 선보인다.

콘서트

JU콘서트
3rd 음악이 있는 나무 요일

일시: 4월 25일(목) 19시 / 무료 입장
장소: 청년문화공간JU 1층 카페
문의: 02)338-7830

4월 25일(목) 19시, 청년문화공간JU에서 <4월 JU콘서트 3rd 음악이 있는 나무 요일>이 진행된다. 청년문화공간JU는 지난해 새롭게 개관하여 청소년·청년들이 언제든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콘서트를 기획했다. JU콘서트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월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콘서트

비보컬 아카펠라 콘서트

입장권: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 문의(예약): 031)738-149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목소리의 마술사들'이라 불리는 남성 5인조 스페인 아카펠라 그룹 '비보컬'이 팬데믹 이후 4년만에 내한, 6월 11일(화) 오후 7시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2024 비보컬 아카펠라 콘서트>는 Be happy(비 해피)라는 부제로 관객들에게 아카펠라 음악을 통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톨릭페이 1주년 기념 이벤트

가톨릭페이로 봉헌하고, 세금 혜택도 받자!

• 가톨릭페이란?

천주교 신자 전용 '가톨릭 하상' 앱에서 간편하게
기부금과 헌금,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가톨릭페이로 봉헌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 교구별 지침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국내 모든 금융사 계좌 연결이 가능합니다.

• 가톨릭페이 머니, 이렇게 쓰세요!

01 교무금과 기부금은 물론이고 **주일미사 헌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02 교무금도 본당 사무실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해요!
03 평일에 본당 사무실 방문이 힘드신가요?
미사 지향 봉헌도 3일 전까지라면 직접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어요!(교적 외 본당도 가능!)

• 이벤트 안내 •

우리은행 계좌로 가톨릭페이 2천원 이상 충전하신 고객 대상
가톨릭페이 머니 최대 5천원 지급! (선착순 1만명)

• 이벤트 기간 •

2024년 4월 11일(목) - 2024년 5월 31일(금)

• 이벤트 참여 큐알(QR) 코드 •

제2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백종원 마르코 부주임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4월 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잔치가 있습니다.

◉ 세례식 : 4월 28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절연습 : 4월 27일(토) 오후 6시 미사 후
※ 예절연습에 대부모님과 함께 참석 바랍니다.

◉ 성모의 밤
일시 : 5월 4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묵주
초(성당 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4일(토) 오후 6시 특전 미사는 없습니다.

◉ 병자영성체
일시 : 4월 26일(금) 오전 10시 출발

◉ 성모신심미사 : 5월 4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5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3월~4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재희	에밀리아	1-1	백정환	가브리엘	2-2
조택희	스테파노	3-3	이수홍	사무엘	3-4
홍성수	디모테오	4-4	이선미	아네스	5-2
권지웅	베드로	5-2	장준원	프루멘시오	6-5
장희원	젬마	6-5	김창하	프란치스코	6-5
황인천	미카엘	7-4	최다연	프란치스카	7-5
원미아	소피아	8-1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5월 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연령회 미사
일시 : 5월 7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5월 1일(수)은 근로자의 날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교리실 사용은 가능합니다.

◉ 남성울뜨레야
일시 : 4월 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뜨레야
일시 : 4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청년 봄 피정
일시 : 4월 27일(토)~28일(주일)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복자사랑 피정의 집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청년 레지오 샛별Pr. 단원 모집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라 함께 더욱 더 행동하고 기도드릴 청년 단원을 기다립니다.
회합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 206호
문의 : 안토니오 단장

◉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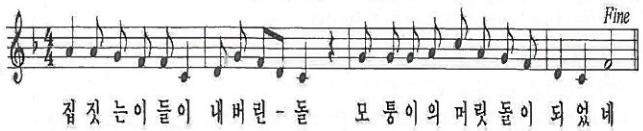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4. 1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1,995	669 (33.5%)	628 (31.5%)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4월 8일~14일)
임대환 ……일십만원 익 명 ……일백만원
미라클합창단 ….일십만원 은희봉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3주일)
교 무 금 ……5,586,000원
주일헌금……6,636,500원

입당	55	봉헌	512,218,221	성체	155,174,175	파견	132